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골3:1-11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골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인해 죄가 들어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골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의 것이란 땅의 것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에 있는 복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 3: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천국백성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하라 : 하나님 기준으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성령충만함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존과 베티 스태(John & Betty Stam) 부부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자들은 이 부부를 끌고 와서 선교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스스로 목을 내밀었고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목을 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W 토저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육신을 억제하고, 단순하게 살 것을 이야기 합니다.

첫째로, 토저는 말하기를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사람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크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의 악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억제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분노, 질투, 음란, 다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한자에게는 넘치는 만족이 있습니다. 더러운 습관을 버렸으면 이제 새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속 사람이 아름답고 깨끗해집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강조점은 간단 명료합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고급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이 있어 성공했다기 보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살았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전 1:18)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한가지 단순하고 중요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출세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다는 지식이 없이 이리 저리 기웃거리다가 죽으면 지옥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영적 지식의 부재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1)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성경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에서이고 차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야곱은 간사하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출생 후 147 년동안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런 조건을 찾아 볼 수 없어 보여도 내면을 보면 그렇게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혼도 믿음의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경건한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록, 예배에 대한 기록,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던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 8:17)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외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만나주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아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2)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우직하게 목숨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때 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과정에 실패를 경험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크게 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서 모세를 온유한자라고 하셨습니다.**“(민 12:3)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는 결국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형통 할 수도 실패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시 119:71)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을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모세와 같이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분은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3. 중국에서 순교한 존과 베티 스태(John & Betty Stam) 부부의 이야기처럼 세상적 기준으로는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하나, 하나님 기준으로 기쁨이 되었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무엇이었던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2014년 한해 동안 영적으로 '단순화 된 삶'을 위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예수 믿고 난 이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 나눠주시고, 이전에 갖고 있던 행복과 성공의 기준 중에 두드러지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나눠 주십시오.
6.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